KIHA NEWS

협회는 일정 기간 인턴 채용 뒤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협회는 일반행정, 기술, 연구 등 직군에서 140명 규모의 인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채용연계형 인턴이란 일정 기간 근무 뒤 심사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인력채용형태다. 협회가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자는 서류 · 필기 · 면접 전형을 거쳐 3월 1일부로 채용된다. 지원은 협회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kiha21.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채용 인원은 10개월 인턴계약직으로 일하게 되고, 근무평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협회는 "기존 계약직 채용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채용연계형 인턴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랑의 재생PC’나눔 26일 김포지역 소외 아동에 재생노트북 20대 전달

협회는 26일 경기 김포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의 학습권을 높이기 위해 재생 PC 20대를 기증했다. 협회는 이날 한국노동복지센터(이사장 황원래)와 함께 김포 실로원지역아동센터에서 사랑의 재생 PC 나눔 행사를 열고 김포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재생노트북 20대를 전달했다. 재생노트북은 김포지역아동센터 20곳에 1대씩 비치돼 교육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사랑의 재생 PC 사업은 사용연한이 다한 PC를 부품교환 · 업그레이드 · 세척 · 재생산해 보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협회와 노동복지센터는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 증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은 PC가 없거나 PC 성능이 떨어져 학습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와 노동복지센터는 2020년 사랑의 재생 PC 나눔 등이 담긴 ‘취약계층 지원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우리부터 중대재해 예방” 20일 결의대회, 보건안전팀 신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20일 경기도 군포 협회 한마음혈액원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안전보건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안전보건 경영을 추구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협회 소속 전국 산하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협회 소속 사업장부터 안전문화를 조성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산하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특강도 진행했다. 협회는 지난 15일 회장 직속으로 안전보건전담조직인 ‘보건안전팀’을 신설했다. 보건안전팀은 협회 전반의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게 된다.